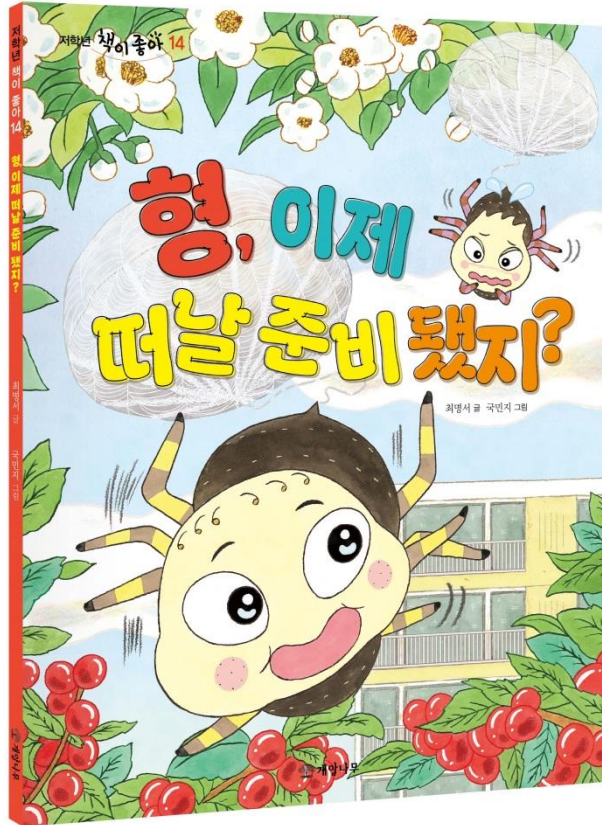


저학년 책이 좋아 14

형, 이제 떠날 준비 됐지?



최명서 글 | 국민지 그림 | 76쪽 | 핵심 주제: 꿈, 용기, 도전, 모험, 가족애

넘어져도 괜찮아.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!
꿈을 찾아 떠날 이들에게 용기가 되어 줄 부적 같은 이야기

평생 베란다에서 산 집 거미 꾸치가 형의 반대를 무릅쓰고
바깥세상으로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
‘넘어지지 않는 삶’이 아니라 ‘포기하지 않는 삶’이라는 용기를 전합니다.

교과연계

- 1학년 2학기 국어-가 4. 감동을 나누어요
- 1학년 2학기 국어-나 8. 느끼고 표현해요
- 2학년 1학기 국어-나 5. 마음을 짐작해요
- 2학년 2학기 국어-가 2. 서로 존중해요

책 읽기 전, 생각해 봐요

Q. 표지를 보고 두 거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.

Q. 거미가 베란다에 사는 게 좋을지, 바깥세상에서 사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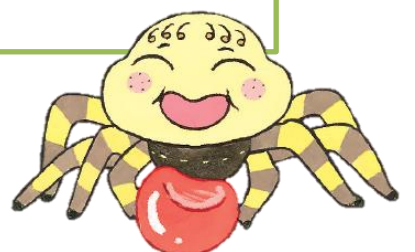


Q. 꾸치와 무치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?

Q. 꾸치의 꿈은 무엇인가요?

Q. 무치는 왜 꾸치가 바깥세상으로 가는 걸 반대하나요?

Q. 꾸치는 왜 바깥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나요?



Q. 일반 거미들과 달리 꾸치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?

Q.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빈칸에 번호를 적어 보세요.



무치가 잠든 사이
베란다 밖으로 탈출했다.

2



무치와 함께 바깥세상으로
나온다.

6



함께 바깥세상으로 가자고
무치를 설득한다.

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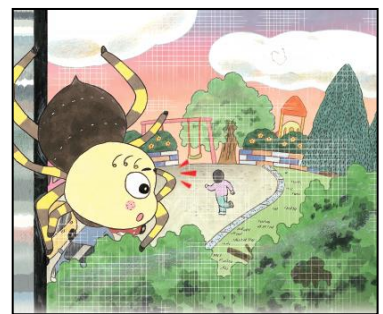
무치가 기다리는 베란다로
다시 돌아갔다.

4



사슴벌레의 공격을 받았다.

3



바깥세상이 궁금해
베란다에서 관찰했다.

1

Q.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제시문

“전에는 몰랐는데, 형이랑 사는 게 좋아졌어. 그래서 말인데…… 함께 바깥세상에 가지 않을래? 거긴 먹을 것도 많고 친구들도 있어.”

꾸치는 간절한 눈빛으로 무치를 바라보았다.

“위험할 텐데 괜찮을까?”

“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대. 위험은 언제나 닥쳐오니까,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 되잖아.”

무치는 눈을 커다랗게 떴다.

“누가 그런 말을 해?”

“내 친구 딱새가. 이름은 포롱이야.”

“딱새? 거미가 어떻게 딱새와 ①_____가 될 수 있어! 너무 위험하잖아!”

무치는 기가 막힌 듯 몸을 뒹 돌렸다. 꾸치는 무치 앞으로 가 말했다.

“위험할 때 서로 도와주면 ①_____지!”

(1) ①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?

친구

힌트: 가깝게 오래 사귀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, 두 글자.

(2) 무치는 왜 바깥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?

Q.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제시문

그리고는 바깥세상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. 사슴벌레에게서 도망친 일부러 아파트 6층 베란다로 날아오른 일까지. 무치는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①_____ 생각했다. 이윽고 마음을 다잡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.

“그래. 가 보자.”

“야호! 진짜지? 지금 당장 떠나자!”

꾸치는 신나서 온몸을 흔들었다. 무치는 말없이 천장을 기어 현관으로 갔다.

(1) ①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?

곰곰이

힌트: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, 세 글자.

(2) 꾸치는 어떻게 형을 설득했나요?

(3) 꿈을 이루게 된 꾸치의 기분을 짐작해 보세요.

Q. 바깥세상으로 나온 무치와 꾸치는 어떤 기분일까요? 기분이 드러나도록 표정을 완성해 보세요!

